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광복절과 국기계양

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반드시 국기계양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국기가 없는 가정에 국기를 갖추도록 행정당국은 안내하고 교육하는 곳에서는 국기계양 지도를 해야 한다.

광복절날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려 주고 국가관을 심어 주는 국가관 교육의 날로 뜻깊게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각 가정에 갖추고 국기계양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기 보유 현황을 사전에 조사해 국기가 없는 가정에 국기를 보급하고 전국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국기계양을 홍보해야 한다. 국기계양 교육은 국경일을 앞두고 특별한 관심을 두고,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자율적으로 국기계양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경일에 국기를 계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해 국경일인 3·1절 제헌절에 국기를 계양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아 부끄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품격 높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역사교육을 해야 하며 국기에 대한 의식교육이 앞서야 한다. 국제화 시

에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국제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우리의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우리 국민이 뜻깊은 국경일에 국기계양을 않는 것은 국민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국기계양 홍보 교육이 잘 안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74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못 하고 남북이 분단돼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하루빨리 없애고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된 날이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정됐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자녀와 학생들을 안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과거사를 탐색해 보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어떠한 만행을 했

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독립기념관이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한번쯤 찾아보는 것도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가관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2천 년을 국가 없이 떠돌이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의식을 지켜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에서 국가관 교육이었다.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독립투사들에는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으려고 피를 흘리며 일제와 투쟁했다.

기념관에 전시된 독립투사들이 간직했던 피 묻은 태극기는 보는 사람들을 숙연케 하고 있다. 국기는 나라상징이며 국기 없는 나라는 없고 나라 없는 국기도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세운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할 일을 다짐하는 것이며, 2007년에 내용 문구가 수정됐다.

우리를 침략한 일본은 과거사 반성은 하지 않고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교과서에 왜곡해 지도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변할 줄 모르는 일본의 침략야욕과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규탄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남북통일을 다짐하면서 광복절 국기계양을 통해 국가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8월 15일은 광복절 제77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일이다. 이 날을 앞두고 우리는 광복절에 대한 교육과 국기계양 교육을 하고 광복절 당일에는 전 국민이 집집이 국기를 계양하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국기계양은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의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경일에 모든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계양해야 한다. 민주화가 성숙할수록 국민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를 오해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경일에 국기계양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독자기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국 중 균
광주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완벽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흠이 없는 구슬이란 뜻으로, 결점이 없이 완전함을 이르는 말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사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신의 뜻과도 배치될지도 모르지만 사람마다 부족한 점과 결함으로 완벽하지 않기에 완벽함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무슨 일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불완전하며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매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완벽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삶에서 흠이 없는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상이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종종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건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 일거라 생각한다. 타인의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굳이 기대치를 높여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기대치를 낮추어 목표를 달성 하는 게 자신을 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꿈꾸지 말고 포괄적인 전체를 아는 사람이 돼라.

한 단면만을 아는 것보다 보통의 모든 것을 알고 생활해 나간다면 사회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종종 싸우다가 화해를 하고 날씨처럼 매일같이 변화하면서 살아간다.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사람이니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일수도 있는데 너무 자비 없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 sns 등이 발달해 지금 일어난 일도 바로 전달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유 시간만 가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몰아세우고 비난하면 진짜 자존감과 자신감 다 떨어뜨리고 난 후에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른다.

각자 나름의 고충과 고민이 있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꾸준함으로 걸어 나가면 완벽함보다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